

朝鮮時代 尙州地方 樓亭의 造景空間에 관한 研究

朴永達* · 韓銀河* · 金善和* · 申永澈**

* 忠北大學校 大學院 園藝學科

** 忠北大學校 園藝學科

A study on landscape space of pavilions in The Sang-ju Region of Chosun Dynasty

Park, Young-Dal* · Han, Eun-Ha* · Kim, Sun-Wha* · Shin, Young-chul**

* Dept. of Horticulture, Graduate School, Chungbuk Univ.

** Dept. of Horticulture, Chungbuk Univ.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ndscape space of Chosun Dynasty pavilions in the Sang-ju Region. Five renowned pavilions were selected for study by Phenomenological and IDRISI(4.1) S/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Pavilions were erected for studying cultivating moral sense admiring the view relieving illness and commemorat memoring people. A total of 248 pavilions were erected in the Sang-ju Region between 1392 and 1895 AD, most of them duing the golden age from 1500-1600 AD.

Pavilions and open space were composed in harmony with nature borrowing natural landscape features.

Landscape characteristics were analysed with IDRISI(4.1) S/W; pavilions were mainly located at the bottom of a mountain with stream. The Inner garden was formed by a fence and *Lagerstroemia indica* or a few trees. The Outer garden was formed by mixed stands of *Pinus densiflora*, *Zelkova serreta*, *Acer formosum* and well conserved natural vegetation.

I. 緒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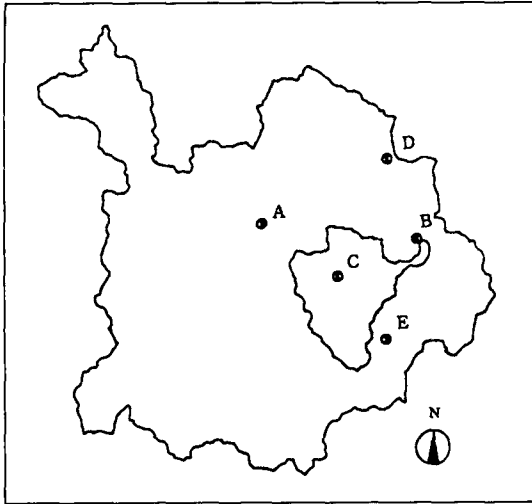
한 시대의 문화 양식은 국민성과 조영자 개성의 표출인 전통문화를 갖고 현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차츰 현대공간의 이미지에서 소외 되어짐에 따라 향토문화의 재 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전통정원문화 중 樓閣과 亭子는 자연과 일치하고자 했던 자연관에 따라 선인들이 명승의 경관을 찾고 풍류를 즐겼던 자연공간이며, 정서적 순화 역할도 가미된 인문공간으로 시대적, 문화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樓閣과 亭子는 공간 및 기능적 역할로 볼때, 樓(Tower)는 다락 樓(重屋) 문 樓(城) 모 일 樓(聚)로 향교, 서원, 성곽, 관가, 궁궐의 뜰과 들에 지은 가장 규모가 큰 정원건축물(민경현, 1991)이라 정의 하고 있고, 亭(Arbour)은 A.D. 98년에 중국의 許纘이 지은 設文解字에 민소이안정지라고 정의하여 포괄적인 쉬는 장소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後漢志에 의한 도적막는 기능이 있음과 釋名에 의한 亭은 머무르는 공간(停), 모여 머무르는 공간(停集)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명문화사업공사, 1967) (안계복, 1988에서 재인용), 박언곤(1990)은 禪宗이 한국불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동화적인 생활로 더욱 亭子和 친숙해 졌는데 이것은 깨끗한 자연을 담으려는 심성은 한국인의 순수한 기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체의 휴식이나 잔치 놀이를 위한 기능보다는 자연인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삶을 같이 하려는 정신적 기능이 더 강조된 구조물이라 하였고, 조선시대 유교적 의미의 亭子는 대부분 시단, 강학소와 은거소요처로 성리학적 조형관에 근거해 亭子문화를 형성하였음(김지민, 1993)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樓亭은 인간의 정주 주변 환경에서 공간적으로 대상물화 되어진 인위적 의도나, 입지된 주변 경관요소인 자연과의 연계는 전통조경문화 양식을 볼 수 있는 유익한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온 尙州地方의 지역적 樓亭 문화를 조망해 보고 그 양식을 토대로한 建築의 由來 및 構成, 立地 및 景觀, 庭內, 外의 造景要素를 파악함으로써 전통공간을 정립하는데 의도를 두었다.

II. 調査方法

상주지방의 樓亭은 이 지역에 분포하거나, 하였던 樓亭(新羅-朝鮮時代)은 301개[(건물인 樓(16), 亭(150)외에 堂(33), 舍(9), 館(3), 齋(14), 軒(7), 窩(2), 閣(1), 庄(1), 院(1) 그리고 경물인 臺(41), 巖(10), 潭(5), 湖(2), 壁(1), 洞(1), 塘(1), 像(1), 壇(1), 欄(1)](상주 문화연구, 1991)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방 樓亭은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소실되었고, 특히 건립자의 성쇠와 산천 경관의 위치에 따라 분포성도 변천을 가져 왔으며(表 1과, 분포편 참조), 樓亭의 건립빈도도 조선초기 이후 조영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 특징이 잘 나타났다고 보아, 연구대상은 조선시대로 한정하였다. 선정기준은 현존하는 樓亭 중 지역 특성에 근접성을 두어 역사성, 건축의 구성 형태, 입지환경, 경관특성, 조망환경에 있어 대표적 유형들 중, 樓亭의 이력에 따라 이건 및 개축 빈도나 손실이 적은 것을 고려 했고, 시청문화공보실, 문화원, 개인문중, 향토자료, 향토사학가에 의한 고증이 용이한 것을 택하였다. 또한 형편성에서 11개 樓亭(94, 한국조경학회에 발표된 11개소 對象樓亭 : 簷山樓, 淸越樓, 金蘭亭, 舞雩亭, 枕泉亭, 瓶泉亭, 鳳凰亭, 觀水亭, 聽澗亭, 玉流亭, 快哉亭)을 대상으로 한 그 공간치와 유의성을 갖고 있어서 공간 양식 중 가장 체계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판단되는 5개를 선정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은 4단계로 나누었으며,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 1단계[고문헌조사] : 신동국여지승람 제 28권, 향토지(상주지, 상주읍지, 함창현지, 함창읍지, 상산지 1.3, 경북 마을지, 화동승람, 상주의 열, 상주 문화지 등)와 개인문중 문집에 의한 목록 자료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樓亭의 역사성과 건축의 구성, 당시의 입지경관 등 조경공간적 요소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 2단계[현지답사] : 조영자 후손과 주변 향토 사학가의 대담, 스케치 및 사진촬영과 실측을 통해 樓亭에서 관찰되는 입지, 건물구성, 조망공간, 건축의 입지점을 중심한 지리적 연관성과 경



(그림1) 상주군도 및 누정 위치(A대산루, B무우정, C침천정, D봉황정, E옥류정)

관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영당시의 상태를 구명하고자 했다.

제 3단계[실측현황도작성, 경관요소분류] : 庭內,外에서 감지되는 식물과 경물, 그리고 건물의 구성 형태를 포함한 현황도 작성 및 GIS. IDRISI(4.1) S/W(data 자료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1:25,000지형도를 채택 하였으며, 지형공간거리 X축 4.6Km, Y축 3.7Km, 격자단위 100m의 속성 값을 주었고, 래스터 방식으로 입력)를 이용한 slope, stream, Landuse, contour, aspects 중 등고선 공간만 출력하고 재래식 지도와 병기하여 지리적 경관을 분석 하였다. 또한 (그림 1, 상주군도) 樓亭의 위치 표시는 ARC/INFO(data 자료는 1:50,000지형도를 채택 하여 벡터 방식으로 출력)를 이용 하였다.

제 4단계[조경적방법연구] : 관련문헌에 의한 전통, 현장답사로 현상학적 측면에서 조사된 관찰내용, 건축의 구조형태를 포함한 庭內,外公間, 그리고 IDRISI출력 경관 분석을 통해 조경 형태를 비교, 고찰하였으며 樓亭분포는 참고로 고찰에 삽입 하였다.

A. 麓山樓 :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1(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56호).

B. 舞雩亭 :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 15-1.

C. 枕泉亭 : 상주시 만산동 703.

D. 鳳凰亭 :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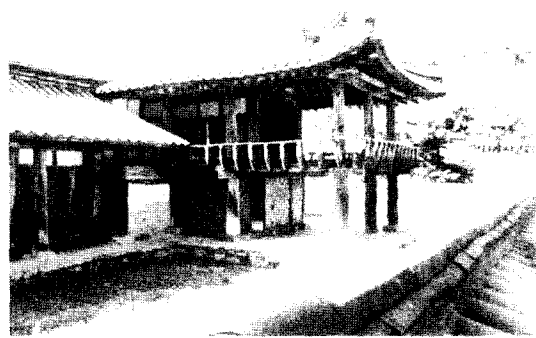
E. 玉流亭 : 상주시 낙동면 승곡 732.

Ⅲ. 事例研究 (공간적 배경)

A. 麓山樓

가. 建築의 由來 및 構成

1603년 문장공 鄭經世(1563-1633)가 강학을 목적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 鄭宗魯가 제자들에게 講論한(상산지 1984), 서실로 鄭經世 선생의 유적지다. 건물구성은 본채와 樓閣채가 연결된 2층 樓閣이며, 42평 규모의 목조와가로 T형을 이루고 있다. 넓은 대지 위에 잡석으로 축대를 낮게 쌓고, 자연석 주초를 배치하여 원주목으로 받쳤으며, 위층은 방주를 한 八作기와이다. 평면구성은 아래층이 正面 5間인데 끝의 한 칸은 樓上으로 올라가는 자연석 흠돌계단을 가설하였고, 2間 側面의 퇴간 1間을 대청마루로 연결되게 마루를 깔았으며, 2층은 정면 2間과 측면 5間으로 고층 벽과 방이 없는 들창으로된 마루이다. 하층에는 부엌을 두고, 아궁이를 높였으며 상층은 서고와 온돌방으로 설치 되어 있다.(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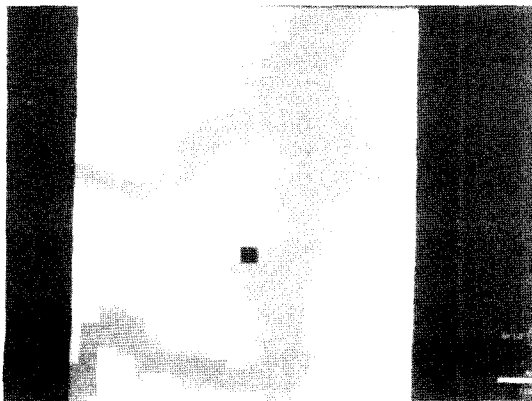


(사진1) 대산루, 근경

나. 立地 및 景觀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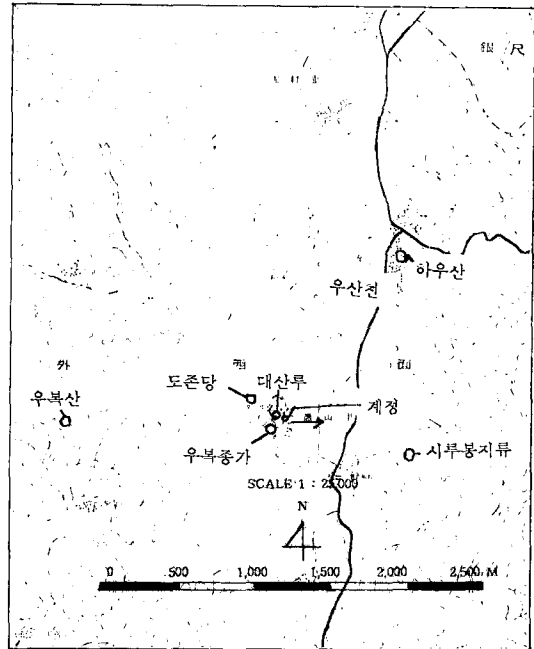
지형적으로 뒷산인 우북산(당시지명:于北山)을 主山으로 하며, 앞산인 시루봉(당시지명:天馬山 220m) 줄기를 朝山으로 한 左靑龍, 右白虎의 형상이 잘 나타난 산 기슭에 인접한 草家 형식의 溪亭(일명:聽澗亭)과 함께 東向으로 입지 되어 있다. 조망성은 전방에 넓은 평야와 愚山川이 흘러 좋은 입지 의도를 보여주는 背山臨水한 길지의 형태로 山川이 수려한 愚山 칠리강산(于北山과 國士峯 사이의 峽谷으로, 栗院(內西의 菴院)에서 下愚山 까지의 중간 칠리 명승의 이름)을 이루고 있는 지리적으로 매우 뛰어난 곳이다. 樓上에 올라 전방을 보면 시루봉 지류의 한 봉우리를 조망축으로 하여 左側으로 계류가 흐르고, 또한 바로 앞에 낙동강 상류인 愚山川의 수경적인 동적요소, 겹겹이 쌓인 山峰은 공간적 위요감을 더한 곡선의 유연성, 들판의 평면성 등으로 다양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건립자 鄭經世의 『臺谷雜永二十絶』은 書宅(臺山樓), 溪亭(聽澗亭), 懷遠臺, 五峰塘, 五老臺, 翔鳳臺, 鰲柱石, 羽化巖, 御風臺, 垂綸石, 臺巖, 花淑, 雲錦石, 雙壁壇, 山景潭, 靑山村, 拱仙峯, 水回洞, 畫圖岩, 萬松洲 등으로 이 부근의 20절영(七里江山二十景)(상주지, 1989)을 나타내 요소별로 볼때 건물, 대, 돌, 바위, 물, 단, 마을, 산, 나무의 경관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조망구성은 산-樓-내(川)-들-산으로 이어진다.

(IDRISI의 contour)분석은 중앙에 검정색 부



(사진2) 대산루, IDRISI. con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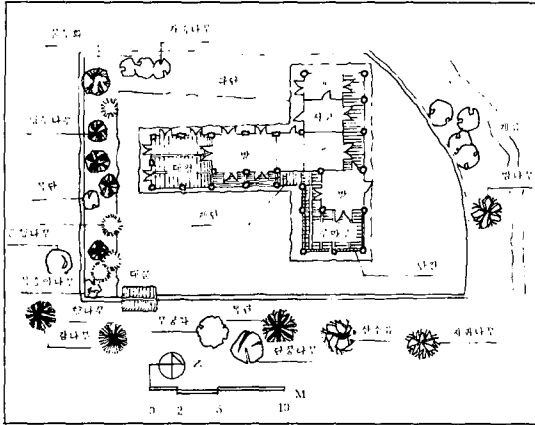
분이 樓이며 열은 분홍(低)에서 진한 분홍(高)쪽의 전개는 등고선 高低 높이로, 노랑색 바탕에 연두색 부분이 주변山의 정상부를 나타낸다. 樓를 둘러싼 兩 봉우리는 左右로 뚜렷이 형성되어 있고, 조망되는 전방(사진 오른쪽)의 청색 바탕은 낮은 지형으로 이곳은 畚, 田, 河川 등이 있어 평면감을 주고 있다. (사진 2) (그림 2)



(그림2) 대산루 외부공간

다. 庭內·外 造景要素

주변 공간은 위요된 산봉과 장방형에 가까운 경계 흠담이 2차적 위요를 나타내며, 樓 옆으로 계류를 면하고, 東西 담벽에 화단을 두었다. 건물의 1층 본채에서 2층 樓閣으로 오르는 전이공간에 7단(높이 1.43m)으로 자연석 계단을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庭內는 근간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복숭아, 옥향, 앵도나무, 목단, 불두화, 가층나무가 식재되었으며, 庭外는 은행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무궁화, 향나무, 자귀나무, 산수유, 목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그림3) 대산루, 평면도

B. 舞雩亭

가. 建築의 由來 및 構成

병자호란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갈때 수행한 蔡得沂(1604-1647)선생이 은거하며 공부하던 곳으로 장수를 목적으로 세웠으며, 건축시기는 1628년이나, 이후 2차례의 보수를 거쳤고, 亭子내에 舞雩라는 편액이 있다. 건물은 막돌로 기단을 쌓고, 前面은 원기둥, 뒷면은 네모기둥으로 3랑기구에 합각지붕인 흘처마 끌기와로 되어있다. 보수당시는 가운데 間과 前面 半間은 우물 마루고, 南西로 방이 배치되어 있던 것을 방을 헐어 버리고, 마루를 깔아 사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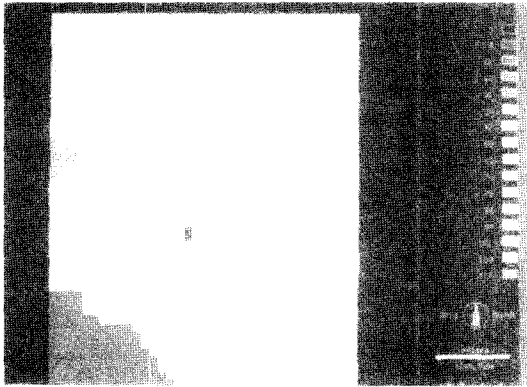


(사진3) 무우정,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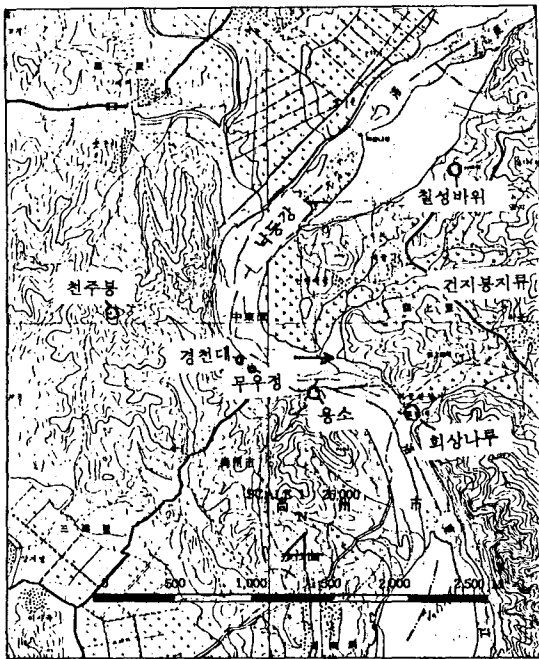
트이게한 正面 3間(6.90m), 側面 1間半(3.35m)의 7평 자리이다. (상주지, 1989) (사진 3)

나. 立地 및 景觀特性

자연지형을 살린 경관지에 山(천주봉)을 배산하고, 전방에 태백산 주봉에서 발원한 낙동강을 건너 乾芝峰(420.9m)의 지류인 민뚝한 작은 봉우리를 조망축으로 하여, 左側으로 칠성바위와 右側으로 회상나무가 조망된다. 옆으로 경천대가 있으며 암절벽 아래의 강물이 부딪치는 깊고 푸른 龍沼의 절경과 광활한 백사장으로 이어지면서 구룡은 능선으로 연결되어 統一된 느낌을 주고 있는 수직암절벽(30-40m)위에 東南向으로 입지하고 있다. 이곳 擎天臺(수직암절벽 40-50m) 주변은 낙동강 1300리 중 가장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당시 蔡得沂(1604-1647)가 지은 [擎天臺 28景]과 [舞雩十詠]이 있다. 이 중 [경천대 28경]은 舞雩亭, 天柱峯, 擎天臺, 詠歸亭, 鼓瑟壇, 爛柯石, 回瀾臺, 翔鳳山, 竹菴, 玉柱峯, 臥龍崗, 雩潭, 千刃臺, 朝陽臺, 龜巖, 觀魚臺, 薇邱, 栗園, 玉難, 幽靜門, 香爐峯, 梧桐霽月, 捧日亭, 鏡湖, 梅亭, 虎巖, 鶴沙, 問津渡 [우담선생 문집, 경천대 산수 자록조]를 구분하면 자연적 20素, 인위적 3素, 상징적 2素, 행위적 3素를 보여주고, 이 중 정적환경이 23素, 동적환경이 5素로 높은 위치에서 먼 곳까지 조망되는 遠景이나 亭子가까이 近景과 中景을 나타낸 경천대 경관의 실체와 상징의미가 포함된 내용으로 경관인식의 우세요소 대상을 간결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蔡得沂가 경천대 주변의 경관을 보고 春夏秋冬 변화하는 시공간적 개념을 표현한 [무우십영]을 보면 虎谷春花(자천대에 초목이 무성하여 洛江의 모래사장까지 푸른바탕에 꽃무늬를 수놓은 28景 중의 하나인 虎巖을 표현), 龍潭秋月(자천대 아래 신비성을 간직한 龍潭을 나타내고 강물 위에 비친 가을 달밤 경치를 묘사), 南澗流櫻(봄날의 밝고 환한 경치를 묘사), 東嶺寒松(사계절의 순환과 雩潭의 高節을 靑松으로 표현), 天臺異石(하늘이 만든 자천대의 청결함은 蔡得沂의 노장사상을 엿볼 수 있는 뜻을 표현), 平沙落雁(가을이 깊은 水國의



(사진4) 무우정, IDRISI. con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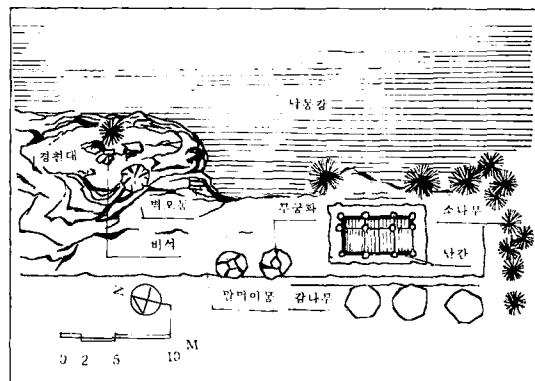
(그림4) 무우정, 외부공간

청신함과 붉은 산 단풍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山水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색채감 있게 연속적으로 묘사), 玉柱朝雲(경천대의 원면 江 중간에 솟아 오른 岩石 봉우리, 옥주봉의 이른 아침 경치를 묘사), 龜巖暮雨(龜巖은 옥주봉아래 江山에 있는 거북형상의 큰바위를 霽潭과 한 데 어울려 수천년 간직해온 신비성의 풍경을 의인화해서

묘사), 箭灘漁花(옥주봉 아래 여울이 있는 玉難에서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 풍경을 묘사), 竹菴清聲(舞雩亭 옆에 있는 竹菴이라는 암자에서 禪을 지향하는 隱士를 仙景에서 찾고자 했고, 자연에서 체험한 느낌과 禪的 경지를 표현)(상주지, 1989)한 (경천대 28景)중, 十景을 다시 선정한 구절로 山水 자연경관내에 내제되어 있는 사실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망구성은 산-亭-강-백사장-들-산-청산으로 이어진다. (IDRISI의 contour)분석은 검정색이 亭을 가리키며 노랑색 바탕에 연두색이 천주봉 정상부를 나타내므로 그 기슭 끝인 절벽위에 입지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망되는(사진 오른쪽) 주변 배경은 옅은 보라색이 적황색부분보다 더 낮은 지형으로 습지대나 강의 흐름을 보여주고, 적황색은 田.畚으로 수평감을 주는 경관체계이다. (사진 4)(그림 4)

다. 庭 內.外 造景要素

무우정 옆은 천주봉과 낙동강물이 부딪치는 경천대(일명 自天臺 : 기암절벽으로 하늘이 만들었다는데서 연유함)와 경천대의 石門에 『大明天地崇禎日月』이란 1704년(숙종30 甲申)에 세운 경천대 碑가 있으며, 臺로 오르는 동선 우측편에 2기의 돌로 만든 鄭起龍(1562-1622)장군의 용마의 덕이통이 있다. 주변공간은 담이 없는 자연과의 연계적인 합일체로 산의 지형과 수림에 의해 위요된 경계를 나타내며, 亭子 옆으로 감나무, 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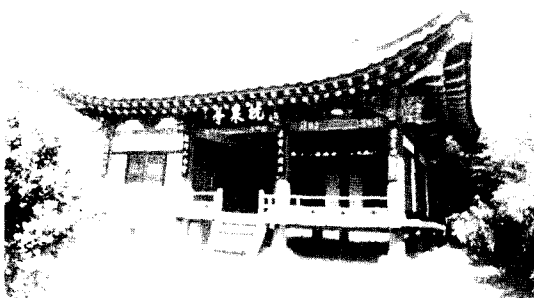
(그림5) 무우정, 평면도

무,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다. 주변식생은 혼효림으로 질벽위 품격 높은 老松과 참나무, 벽오동 및 잡목들의 단풍, 자생초화류 등, 조화로운 생태계를 구성한 절경이라 경외심마저 느낄 수 있는 수림경관이며, 밤이면 강가에 비친 달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정적 공간을 이루고 있다. (그림 5)

C. 枕泉亭

가. 建築의 由來 및 構成

1577년 鄭崑壽가 觀景을 목적으로 세웠고, 옛 17개 管署 건물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商山館, 太平樓, 枕泉亭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지방기념물 77호인 임란북천전적지내(商山館, 太平樓, 枕泉亭, 壬亂紀念館, 忠烈祠)에 있으며 蓮堂, 天香亭, 二香亭이란 당초 亭명을 갖고 있다. 건물구성은 樓마루를 얹게 하여 2층을 이룬 一자형 평면의 건물로 기단은 흙을 깎아 내려 30cm정도로 높이하고, 창방과 창혀 사이에 연화와 연봉의 화반을 4면에 받쳐 놓았다. 처마는 겹처마에 八作 지붕으로 상주지방의 어떤 古 건축물 보다 지붕의 생김새가 날렵하여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亭子이다. 평면구성은 一자형의 正面 3間, 側面 2間(8.4m×5.6m) 14평으로 前面에만 계자난간이 남아 있고, 전이공간으로 正面의 중앙에 계단을 설치 하였다. 천정은 5량 기구로 연목 천정이나, 한국의 목조건축 중 하나의 특성인 구부러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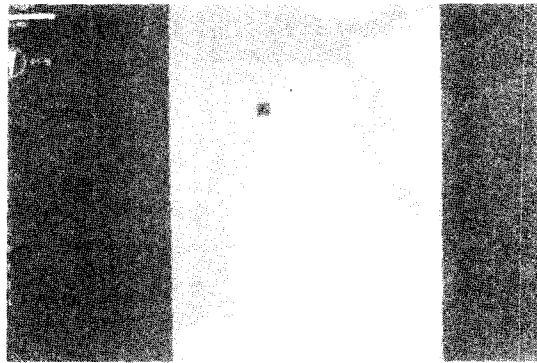


(사진5) 침전정,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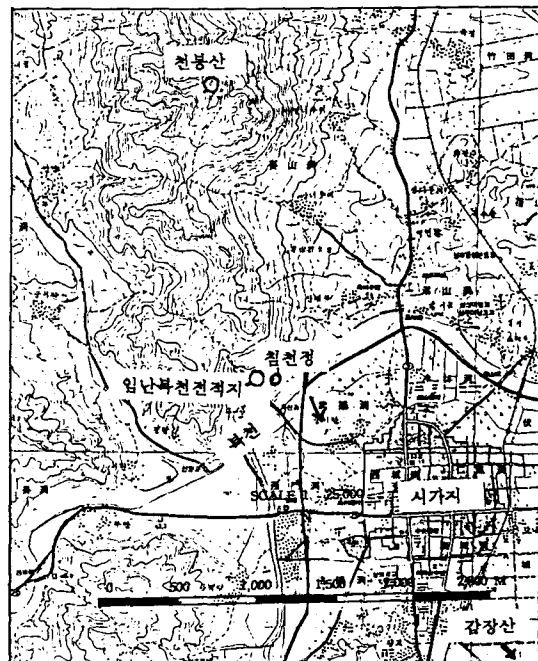
무를 사용하고 있다. (상주지, 1989) (사진 5)

나. 立地 및 景觀特性

입지된 亭子를 기점으로 상주의 진산이며 속리산의 지류인 天峰山(435.8m)을 주산으로 하고, 상주의 안산인 甲長山(805.7m)과 문필봉을 조망



(사진6) 침전정, IDRISI, con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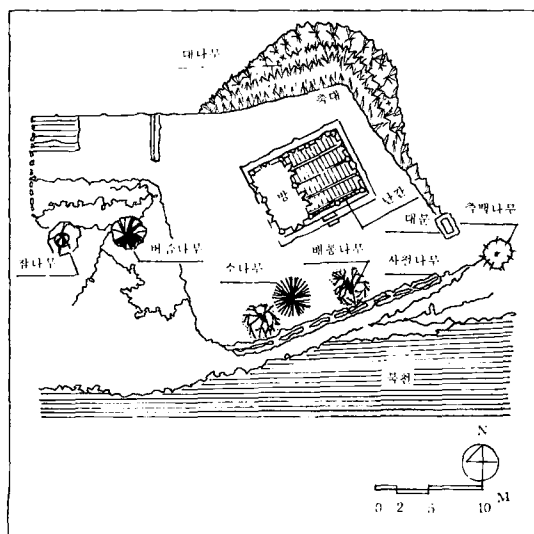
(그림6) 침전정, 외부공간

축으로 하여 南向하고 있다. 전방에 흐르는 내(北川)와 들판, 그리고 상주시 전경이 펼쳐지고, 左右 遠景의 봉우리들이 위요하고 있으며, 상주의 三岳(淵嶽(甲長山), 露嶽(露陰山), 石嶽(天峰山))중 에 甲長山과 天峰山 사이 北川과 南川이 상주시 를 감싸는 二水二山의 형국을 일직선상으로 나타 난 景觀체계를 이룬다. 조망구성은 산-亭-내(川)- 들-도시경관-들-청산으로 이어진다.

(IDRISI의 contour)분석은 亭의 위치가 검정 색부분으로 등고선 高.低에 따라 노랑색 바탕에 연두색이 천봉산 정상부를 나타내면서 그 지류 끝인 경사지에 입지한 형태다. 조망되는 전방(사 진 오른쪽)은 지형상 高.低의 굴곡을 나타내지 않 고, 三面이 트인 수평상태를 이룬 청색바탕을 보 여주고 있다. (사진 6) (그림 6)

다. 庭內·外 造景要素

침천정의 연류어인 수경적인 요소에 뜻을 갖 고, 대문은 있으나 담이 없는 개방된 상대나 뒷면 은 축대로 높이 쌓아 배경의 위요설정이 되어 있 다. 正面은 개방되어 전방에 흐르는 내(川)를 감 상할 수 있으며, 左側에서부터 건물 뒷면의 축대 를 따라 식재되어 있는 대나무林은 대단한 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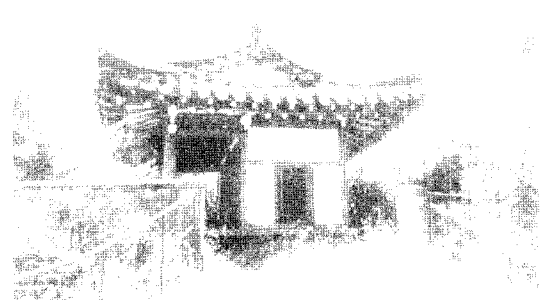
(그림7) 침천정, 평면도

를 주고 있다. 주변식생은 인위적인 식재로 보이 는 배롱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측백나무, 대나 무, 버즘나무 그 외 자생식생으로 참나무, 아카시 아 등, 잡목림을 이루고 있다. (그림 7)

D. 鳳凰亭

가. 建築의 由來 및 構成

1500년대초, 翫讀官, 柳希任이 이곳 山水가 明麗하여 일찍이 臺上에서 杪요하고 그 위에 壽藏 할 곳을 얻으니 후손들이 추원경모하는 뜻으로 이 亭을 세웠으며, 亭子를 앉힌 鳳凰臺가 있어 옛 날에 鳳凰(상상의 영서로운 새)이 이 臺에서 놀았 다는 세속 초탈의 전설(함창현지, 1986)이 있다. 건물구성은 卍자형 평면형으로 기단은 시멘트로 둘러 쌓은 곳에 원주목으로 받혀있고, 전면에 골 판문과 후면에 판벽을 한 겹치마에 골기와 팔작 지붕이다. 평면구성은 正面2間, 側面2間 11명으로 마루로된 1실의 방이 있고, 左右側과 前面은 평마루로 되어 있으며, 前面에 원주목, 側面에 사 각주목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7)



(사진7) 봉황정,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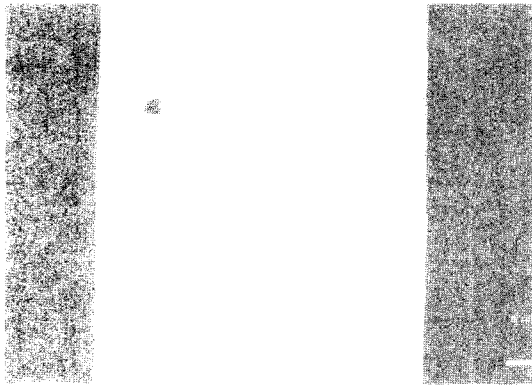
나. 立地 및 景觀特性

위치상 함창읍에서 東南쪽, 5Km정도의 거리 로 강변을 끼고도는 금곡리와 신흥동 입구, 高 층 鳳凰臺上위에 南東向하여 입지되어 있다. 지

형적으로 永順江과 利安川(천천 과 저천)이 합류하고 알운, 비봉, 덕봉 등 三山이 있는 곳으로 이태백의 二水三山과 같은 詩句의 美에 따라 臺명을 하였고, 신라때는 近邑의 田稅를 이곳에 모아 甃길로 운반했으리만치 나무터의 요지(합창현지, 1986)라 하였다. 이렇게 주위의 二水三山을 두고 李白의 詩를 인용하여 臺명을 하였듯이 주변경관의 우세 요소가 그 당시 대단히 뛰

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亭子 左側面에 도로(당시는 川), 내(川), 들판, 청산이 조망되는 측면적 시야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 입지된 뒷산 봉우리(오봉산(235m) 지류)와 亭子를 이은 수직적 조망선상은 ㄱ형 구조를 보이는 경관 체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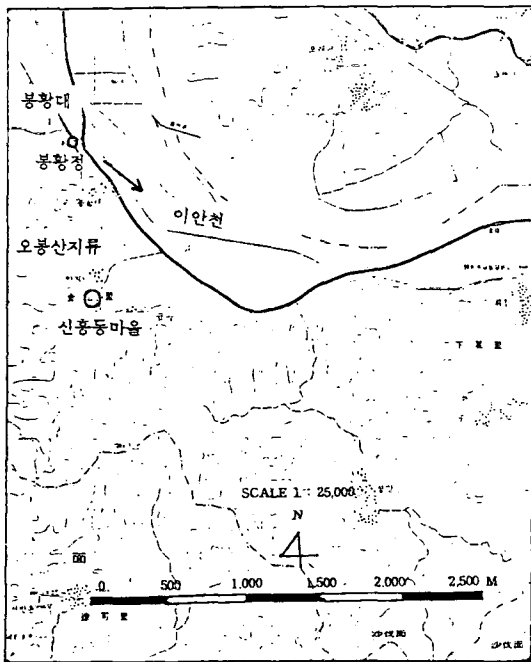
〔IDRISI의 contour〕분석은 亭이 겹겹색 부분으로 경사지가 아닌 높은 대상위에 입지되어 있어 넓은 조망 범위를 가지는데, 청색 바탕인 낮은 지형에는 들과 하천으로 수평을 이루고, 조망되는 방향성의 시야 전개(오른편)는 한쪽 側面이 매우 발달된 경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8)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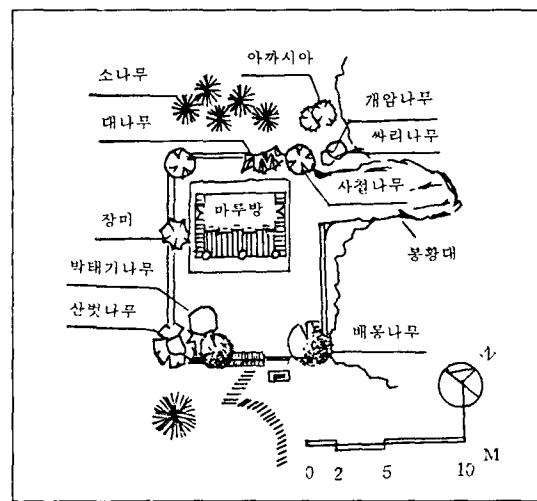
(사진8) 봉황정, IDRISI. contour

다. 庭內·外 造景要素

鳳凰亭은 鳳凰臺上(17.5m)에 입지되어 있고, 亭子에 오르는 동선으로 S자형 계단을 설치했다. 정상에는 우물이 있고, 북편에 창고의 유지가 있었다(합창현지, 1986)고 하며, 亭庭은 臺上으로 나온 공간을 포함해 45평규모로 아담하다. 臺上에 홀연히 입지한 까닭에 담장으로 위요 처리되어 시각상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개축 시에 세멘 담장과 철문 그리고 시멘트 기단과 臺上 경계의 보호대인 파이프 난간을 포함해 亭子和 위화된



(그림8) 봉황정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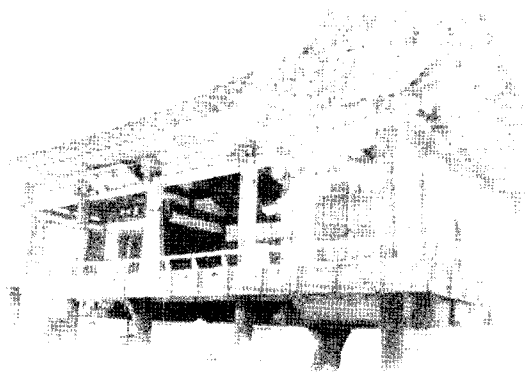
(그림9) 봉황정 평면도

처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庭內에는 대나무, 산
벗나무, 박태기나무, 배롱나무, 사철나무, 장미가
식재되었으며, 庭外에 소나무가 있고 빠른 번식
력을 가진 싸리나무, 아카시아가 亭子 가까이 무
분별한 식생을 이루고 있다. (그림 9)

E. 玉流亭

가. 建築의 由來 및 構成

건립자 趙 靖이 독서하던 곳으로 1620년경에
와양을 목적으로 지었고(상주지, 1989), 건물
前面 처마에는 『玉流亭』, 左側 방에 『洗心軒』,
右側 방에 『詠歸室』이란 편액을 달았으며, 『黔
澗趙先生杖履之所』라는 九자가 새겨져 있다. 건
물구성은 正面 4間, 側面 2間的 20평으로 기단
은 자연석 막돌로 쌓았고, 기둥은 전면에 있으
며, 외진주는 원주, 내진주는 각주이다. 중앙 2
間은 우물마루이며 전 퇴간에 계자난간을 설치
하여 안정감을 도모 하였다. 마루인 대청 左 右
로 방을 넣었는데 左側방을 대청보다 약간 높게
하였으며, 앞의 1間 폭은 마루로 깔고, 천정은
반자천정과, 처마는 겹처마에 5량 가구로 보를
걸쳤다. 지붕은 八作지붕으로 추녀구성을 다소
날렵하게 하여 아름다움을 구사 하고 있다. (사
진 9)



(사진9) 옥류정,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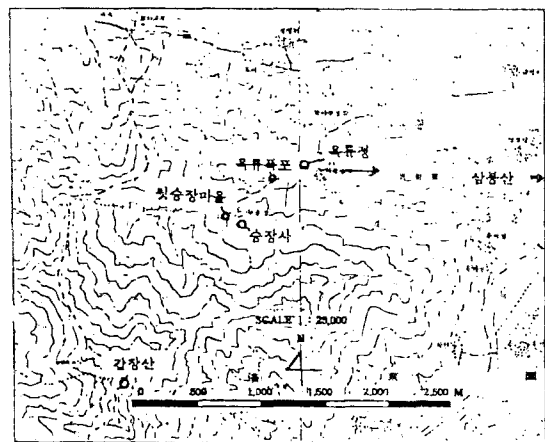
나. 立地 및 景觀特性

이 마을 승곡리의 속칭 윗 승장에 勝長寺가 있
었고(상주지, 1989), 亭子 남서편에 있는 甲帳山
(805.7m)에서 뻗어 내린 일곱번째 봉우리를 배
산한 산 기슭에 東北向하여 입지되어 있다.

지형적으로 전방에 老松의 자태와 玉流瀑布(일
명 勝長瀑布)의 계류가 흘러 대청 마루에 앉으면
물소리가 맑게 들리고, 계류의 큰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近景은 매우 뛰어난 절승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遠景은 三峰山(447.6m)과 낙동강을 향
하고 있어, 멀리 수평적 Skyline을 두었으나, 中
景의 작은 산봉과 주위의 수림으로 위요경관을



(사진10) 옥류정, IDRISI. con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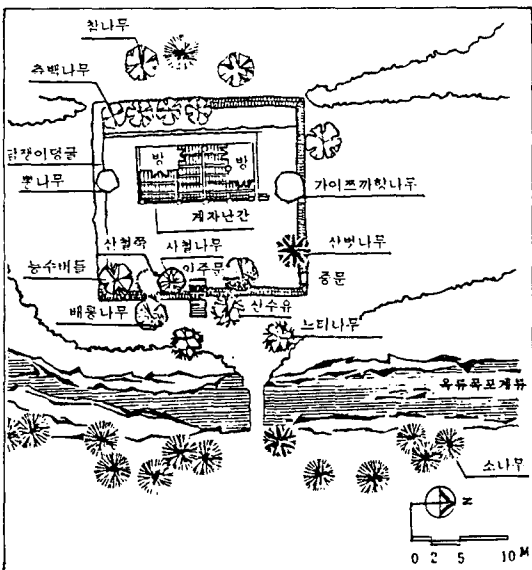
(그림10) 옥류정, 외부공간

형성하고 있다. 조망축은 산-亭-계류-들(산)-청산으로 이어진다.

(IDRISI의 contour)분석은 청색바탕의 검정색 부분이 亭으로, 등고선 高低에 따라 노랑색 바탕에 연두색은 갑장산 정상부근을 나타내고, 그 기슭에 입지된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열은 청색과 짙은 청색은 낮은 高低 지대의 형태라 이곳은 田과 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망 선상은 遠景 대상물이 먼 거리를 유지하나, 亭과 遠景 사이에 낮은 봉우리 등 시각 장애 요소가 있는 곡선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 10) (그림 10)

다. 庭內·外 造景要素

亭庭은 438,21m²의 면적을 갖고, 주입구는 11개의 계단을 두어 亭內로 동선을 연결시켰다. 출입문은 前面과 右側에 一間門과 中門을 두었고, 흙담장으로 亭을 보호하고 있다. 우측편 담장밑에는 노단이라기보다 약간의 경사처리를 주었으며, 右側 마루로 오르는 통로에 계단을 두고 있다. 庭內에는 산벚나무, 측백나무, 뽕나무, 배롱나무, 사철나무, 산철쭉, 수양버들, 가이뜨까향나무, 담쟁이덩굴이 식재되어 있고, 庭外는 느티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산수유, 참나무 등 잡목식생을 이루고 있다. (그림 11)



(그림11) 옥류정 평면도

IV. 考察

조선시대 상주지방의 樓亭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너무 방대 하고, 원형의 복원에 따른 그 특성을 일별함에는 한계성이 있으나 문헌 및 고증자료를 토대로 내용에 충실도를 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대상 樓亭은 문화재급이나 개인문중소유로서 조선시대에 건립되고 변천에 의해 이진 개축되어 지금까지 현존하는 건물이다. 이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특색있는 것을 선정해 樓亭分布, 建築의 環景, 立地 및 景觀特性, 庭內·外 造景要素別로 종합 고찰하였다.

가. 樓亭分布

〔상주지방의 樓亭은 본래 자연적인 것이었다. 냇시터에 앉은 바위가 臺가 되고 路傍에 松槐 그늘이 亭이 되었으며 採藥하는 稜線에 열매 따는 어리덕이 樓였다. 이렇게 비롯된 臺와 樓亭은 차차 그 편리를 위한 발전을 거듭 하였는데, 냇시터에 그늘이 필요하니 기둥을 세우고 나무가지를 걸쳐 그늘을 지우는 亭자가 서고, 松槐 그늘에는 비, 바람을 막기 위하여 壁을 쌓고 지붕을 하였다. 藥 캐고 열매 따는 쉽터와 어리덕도 항구적인 것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그 위치도 점차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가리게 되었으며 건물도 다듬지 않은 두리기둥에 새 짚, 굴피 등으로 이었던 것을 차차 동기와 옹기기와로 갈아 이게 되고, 바위 위에 그대로 세웠던 것도 마루를 깔고 난간을 들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臺와 樓亭이 세워졌다가 헐리고 하였으며, 그 수가百에 이른다〕(화동승람, 1991)고 하였다.

〈表 1〉은 新羅時代-朝鮮時代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그 당시 향토지를 근거로한 연구로서 [상주지방 樓亭의 건립초기는 고증할 길이 없고, 고려의 僧 眞靜이 쓴 四佛遊山記에 (山陽縣)의 大乘山 白蓮寺에 尙州牧使 崔滋가 高宗 29年 (1242) 虛白樓를 세웠고, 이 樓가 地誌 등의 전승 여부로 보아 이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이다. 또한 상주지방 樓亭 건립년대는 신라시대에 7개, 고려시대에 15개, 조선시대 초기 1392-1494년

〈表 1〉 尙州地方 地誌上 地域別 樓亭 調査表 (資料:尙州文化研究所 1991)

지역별 지지방	계	상주	합창	사별	중동	낙동	청리	공성	외남	내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외서	은척	공검	이안	점촌	영순	산북	산양	단밀	적요
신증동국여지승람	10	4	2			2												1	1						중북
상산지 1	108	22		8	13	7	8	3	2	2	9		3	5	1	3	2		1	1	1	2	10	5	
상산지 3	59	14		1	3	4	3	6	1		1	1	1			4	2					1	13	1	
상주읍지	15	6		1	1	1					2				1	1							1		중북
합창읍지	3		2																						중북
합창현지	50		22	1														10	14		3				중북
계	245	46	26	11	17	14	11	9	3	2	12	1	4	6	2	8	4	12	19	1	4	3	24	6	일부중북
누정총수	212	33	22	10	15	11					10					7		10	17				23		문헌상수
현존	301	43	29	13	20	18	16	10	3	2	15	3	7	7	5	10	7	15	21	2	10	5	34	6	실수
현존	71	9	3	2		11	1	2			5		4		3	2	3	2	6		1		16	1	
훼손	230	34	26	11	20	7	15	8	3	2	10	3	3	7	2	8	4	13	15	2	9	5	18	5	

에 27개, 1495-1608년에 80개, 1609-1720년에 80개, 1721-1834년에 44개, 1835-1895년에 17개, 연대미상이 31개를 합쳐 301개이며, 지금까지의 보존된 곳은 80개소이고, 위치만 보존된 곳이 56개이다(상주문화연구, 1991)라고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이 중 樓亭총수가 301개이나 문헌상수나 실수가 적은 것은 누락된 것으로 다른 개인문집 등을 참고해 발취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신라-조선시대(현존, 문헌상수 포함)까지 조사된 301개(건물, 경물 포함)중, 건물인 樓閣은 16개소, 亭子는 150개소로 총 166개며, 여기서 조선시대 樓亭총수(시대적 한계는 1392-1895년 까지, 건물, 경물 포함)는 248개로 나타나는데, 이 중 樓閣(총 12개 중 현존 5개, 훼손 7개)과 亭子(총 128개 중 현존 46개, 훼손 82개)의 전체수는 140(현존 51개, 훼손 89개)개소이며 미상은 제외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주지방의 시대적 樓亭변천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중기까지 증가되어 오다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500-1600년대는 정치적 안정과 문물이 중흥을 이루었던 시기였고, 유교권의 이동으로 사대부들이 향리로 돌아와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자 했던 자연관이 일상생활로 접해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樓亭의 건립이 일반화 된 것은 사회, 문화적 주류가 그 당시 지식층과 개인 문중들의 樓亭건립 발로를 자극한 시대적 흐름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나. 建築의 環境

1. 建物の 由來 및 構成

樓亭의 기능 중 문화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립 목적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상주지역 樓亭(신라-조선시대)조사에서 문헌지에 나타난 이용목적을 분류해 보았을 때 경관을 玩賞하기 위한 곳이 가장 많고 다음이 수양하고 휴식하는 곳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지명, 관직명, 건립자 아호, 산명, 물, 풍월, 암석, 나무와 화초, 조류, 고사성어에 뜻을 두어 자연적인 상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樓亭명과 기문 때문에 樓亭이 유명해진 경우가 많다(상주문화연구, 1991)고 하였다. 한편 樓亭건축의 형태론적 유형은 평면형태에 따라 方形, 六角形, 八角形, 扇形, 十字形, 丁字形, 字形으로 분류된다(박익수 1990)고 하였고, 경북

〈表 2〉 建物の 由來 및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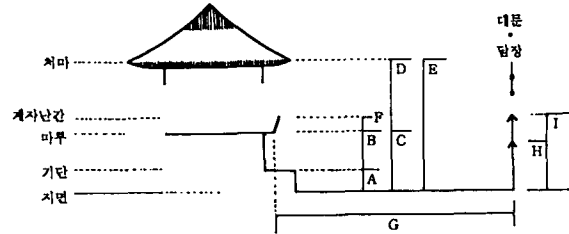
亭名	由來				構成			
	建築年度	作定子	作定	象數	形態	平礎成	지붕形態	欄杆의 室의
靈山樓	1603	鄭經世	강학	관직	T	5×2	八作	유 유
舞亭	1628	蔡得沂	장수	강물	-	3×1.5	합각	유 유
枕泉亭	1577	鄭萬壽	관경	물	-	3×2	八作	유 유
鳳凰亭	1500초	柳希任	추원경모	조류	□	2×2	八作	무 유
玉流亭	1620경	趙端	와양	물	-	4×2	八作	무 유

지방 휴양식 중 지붕형태는 팔작이 90.8%이고 9.2%가 맞배로 되어 있으나 良洞의 경우는 반반이라고 하였다. (안계복 1988)

〈表 2〉와 같이 인문환경적 유래로 볼때 건축년도는 조선시대 중기로 볼 수 있고, 樓亭건립의 작성성은 講學, 藏修, 觀賞(관경, 관망), 臥養(휴식), 追慕(기념의 목적)형태로 건립목적별로 보아 樓亭공간은 개인과 연관 되어진 정신적 역할이 가미된 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연경관 및 의미에 따른 명칭은 경관대상지 주변 경물에 연유된 상징묘사로 水景과 연관된 玉流亭과 枕泉亭, 鳥類에 따른 鳳凰亭, 靈山樓의 관직명과 같이 주관적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건축구성의 형태적 특성으로 여기서는 건물의 형태, 지붕, 평면구성, 난간, 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형태성은 T형, -형, □형 중, -자형(3개소)이 많았고, 지붕형태는 합각(1), 八作형(4)으로 되어 있으며, 평면구성은 정면 2, 3, 4, 5間 × 측면 1.5, 2間, 난간의 有.無는 有(3), 無(1), 전면 有(1), 실의 有.無性에는 1개소를 제외한 모두 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형, 八作형, 난간(有), 실(有)이 많고, 평면구성도 정면이 측면보다 間數가 많았다.

2. 建築의 前面 眺望性

상주지방 건축공간을 중심으로 한 조사 분석 내용은 樓亭 건축의 조망 연관성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인위적 건축물과 자연환경과의 연계적 의미가 주어지고, 인문환경이 내포된 공간구성상의 현상이기 때문에 흐름을 방해하는 대상



(그림 12) 건축부위별 조망 연관성

- A:기단 · H B:기단-마루 · H C:지면-마루 · H
- D:마루-처마 · H E:지면-처마 · H F:난간 · H
- G:마루-담장 · L H:담장 · H I:대문 · H

물을 배제하여 경관상 막힘이 없고 행위적 공간으로 건축되어 있다.

〈表 3〉과 (그림 12)의 내용으로 볼때, 樓亭의 側後面을 제외한 前面에 따른 건축공간의 분석치로, 地面-마루의 높이는 樓(2.54m)가 亭(1.42m)보다 높아, 樓는 평면인 地面에서 올라다 볼 수 있는 수치가라 시각적 또는 행위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亭은 눈높이의 수평적 상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내려다 볼 수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중과 쉽게 교류할 수 있는 회합공감적 의미 전달을 나타내고 있다. 마루-처마높이는 亭(2.44m)이 樓(2.04m)보다 높으며, 이는 樓는 홀 처마이고 亭은 처마를 더내은 겹처마인 경향도 있지만, 亭은 낮은 위치에서 조망대상을 넓고 높게 보고자 하였고, 높은 위치의 樓는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 했으리라 생각된다. 마루-담장까지 地

〈表 3〉 建築的 要素에 따른 眺望空間.

(Unit : m)

樓亭名	基壇 · H	기단-마루 · H	地面-마루 · H	마루-처마 · H	地面-처마 · H	欄干 · H	마루-담장 · L	담장 · H	大門 · H
靈山樓	0.54	2.00	2.54	2.04	4.58	0.53	3.04	1.71	3.73
舞雩亭	1.05	0.50	1.55	1.99	3.54	0.52	無	無	無
枕泉亭	0.32	1.34	1.66	2.56	4.22	0.48	無	無	3.32
鳳凰亭	0.19	0.48	0.67	2.46	3.13	無	6.38	1.17	3.04
玉流亭	0.35	1.46	1.81	2.75	4.56	0.48	8.57	1.41	3.42
樓 (A)	0.54	2.00	2.54	2.04	4.58	0.53	3.04	1.71	3.73
亭子 (B)	0.48	0.95	1.42	2.44	3.86	0.49	7.48	1.29	3.26
차이점(A-B)	0.06	1.05	1.12	-0.40	0.72	0.04	-4.44	0.42	0.47

面-처마높이 비율은 樓는 3.04m:4.58m로서 1:1.507의 비율로 나타나고, 亭은 7.48m:3.86m로서 1:0.516의 비율로 반대 개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마루-담장까지 樓(3.04m)는 亭(7.48m)보다 짧은 간격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경계적인 외적 공간감을 담고 있으며, 亭은 담장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안으로 들어간 구성체계라 안도감과 privacy를 樓보다 더 강조한 內的 공간감을 주고 있다. 또한 亭子 공간내에서의 행위는 대부분 마루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地面-마루의 높이 1.42m와, 성인이 앉았을 때의 눈높이 0.79m(이호진, 허동국, 1980) (김용수, 이제화, 1989에서 재인용)를 더해 2.21m로 나타나 인간의 보통 키보다 높고 담장높이 1.29m보다 0.92m높게 하였으며, 난간부분(樓0.53m, 亭0.49m)은 모두 평균 앉은키보다 낮아 전혀 조망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다. 인공지를 갖춘 정자의 조망각도에서 난간위를 지나는 부각은 약 11°로 난간 설치시 조망을 충분히 고려(김용수, 이제화, 1989)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자난간의 높이는 조망에 방해되지 않는 쪽으로 좌선의 위치에서 눈아래의 높이로 조절하였고, 담벽을 높이지 않았으며 건물의 분위기를 상승시키기 위한 지붕과의 비례를 고려하였다. 창문은 통풍 또는 일조량 조절외에 주변 경관을 끌어들이는 借景효과와 자연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청각기능 등, 五感(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민경현, 1992)을 통한 감성적 유발동기와 물아일체의 경지를 얻기 위한 기능성을 엿볼 수 있다. 세연정 정원도 공간구성에 있어서 비례 체계와, 구조물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비례를 도입하고 풍류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조성 그리고 시각적 체험이 유리한 곳에 의도적으로 도입한 경관요소등을 통해 尹孤山의 조형관이 표상화 된 공간(최은창, 홍광표, 1994)이었음을 볼때, 이러한 樓亭 자체가 인위성을 가진 대상물이지만 시각면에서 자연과 더 가까이 동화를 증시하고, 비례를 맞춘 편리성은, 자연과 일치하려는 의도와 생활공간을 강조한 것으로 자연경관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에로의 회귀를 갈망했음을 볼 수 있다.

다. 立地 및 景觀特性

1. 立地環境

樓亭공간은 우리 선인들의 정신문화와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입지되어 있다. 따라서 樓亭의 입지는 정동오(1986)의 분류방식에 따라 이종민(1992)은 4개소의 연구대상인 식영亭, 환벽당의 경우 강안형(큰 강, 계류가 근처 하류에 가까운 언덕), 면양亭은 구상 및 산복형(높은 언덕위), 소쇄원(광풍각, 제월당)은 근린형(산기슭, 주거근처)으로 입지 되고, 정동오(1986)는 전라남도 62개 亭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강안형(큰 강, 계류가 근처 하류에 가까운 언덕) 26개 亭, 구상 및 산복형(높은 언덕위) 16개 亭, 근린형(산기슭) 19개 亭으로 분류하고 있다.

<表 4> 立地空間

樓亭名	立地位置	家宅關係	立地軸	立地方向
籬山樓	산기슭	가택부근	후산(우복산+천마산 지류)	E
舞雩亭	강변(高層절벽)	별개	전·후산(천주봉+건지봉)	NE
枕泉亭	산기슭	가택부근	전·후산(천봉산+갑장산)	S+SE
鳳凰亭	강변(高層 岩)	별개	전·후산(오봉산지류 좌, 우)	SE
玉流亭	산기슭	별개	전산(갑장산 지류+삼봉산)	SE+E

<表 4>와 같이 이번 조사 樓亭인 舞雩亭은 낙동강이 흐르는 수직암 절벽위인 강변에, 鳳凰亭은 영순강이 흘렀던 봉황대상위에, 천봉산 산기슭에 있는 枕泉亭은 내(川)을 끼고, 玉流亭처럼 옥류계류옆으로 물과 연관되어 절경을 이루는 산기슭에 위치 하였으며, 籬山樓와 같이 인접한 주택(愚伏宗家)부근의 건물로 우복동 산기슭에 분포되는 하우산 마을과 접해 있고, 田.畓 주변에 있으며, 기타 오감을 느낄수 있고, 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주변 여건상 위요된 곳이라, 전남지역과 같은 입지성을 보이고 있다. 가택관계는 籬山樓, 枕泉亭과 같은 주택부근을 제외한 모두 민가와 떨어진 별개형으로 나타나고, 입지축에 있어서는 건물을 前後하여 산봉이 조망되는 입지특성을 가진다. 樓亭의 좌향에 있어 정동오(1986)의 전라남도 亭子園林의 입지특성 및 공간구성 연구에서 좌향은 입지조건과 산수경관

의 조망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이종민 (1992)의 연구에서는 식영亭은 南西向이고 면양亭, 소쇄원, 환벽당은 南東向으로 되어 있어 생활공간으로 樓亭의 좌향을 택한 것으로 보아, 좌향론을 비교할 때는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이번 대상지역은 南向 선호보다는 방위성이 배제된 배경중심적 입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산, 강, 계류, 바위 등 절승요소는 樓亭의 입지선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2. 景觀特性

경관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경치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을 지원해 주는 생태적 속성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경관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끼도록 하는 상징적, 철학적 속성이 있고 (임승빈, 1991), 한국처럼 다기능적인 자연을 즐기고 樓亭에서 보이는 주변 특정 지역을 시각 대상물화 시키는 경관 처리 기법과 (안계복, 1992), 樓亭 주변부에서 경관을 향해 바라보는 조망축을 기준으로 축선상에 특징적으로 나열되는 요소로 4단계 (背景, 遠景, 中景, 近景) 경관구조특징 (안계복, 1989)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번 경관특성에는 현상학적 측면 (임승빈, 1988)에서 <表 5>의 경관요소와, IDRISI기법에서 근경 (1:25,000지형도는 세부경관을 적시 할 수 없음)이 배제된, 지형적 中. 遠景을 대상으로, 이들 특성이 인간존재 혹은 거주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가를 이해하여, 이러한 체험을 통해 실제현상의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주지방 對象樓亭의 경관은 <表 5>와 같이

높은 지형에 위치하여 넓은 경관범위를 조망토록 유도한 鳳凰亭과 舞雩亭, 산기슭이면서 긴 조망거리를 주는 枕泉亭, 담이 없이 외부공간을 더 접하고자 한 舞雩亭, 계류옆의 청각요소를 도입한 玉流亭, 簾山樓와 같이 모든 지형상의 입지여건에 따라 취경, 유경, 차경 등으로 공간수법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 되어 있다. 또한 IDRISI S/W를 통해 樓亭환경내에 내제된 경관조망특성별 구조류형은 건축의 입지점에서 遠景의 산을 조망축으로 했을때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형만을 나타낸 것으로 수평적, 측면적, 곡선적구조로 분류하였다. 이에 近-遠景요소 중 시각상 정연하고 대상 장애물이 별로 없는 수평감, 또는 평면감을 줄 때는 水平的構造 (평면구조 포함)로, 樓亭의 한쪽으로는 인지되는 대상물이 있어 시각장애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은 경관대상물의 인지시야가 양호할 때를 側面的構造로 보았다. 또한 조망거리가 멀어 수평구조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近景요소를 제외한 近-遠景사이에 시각장애적인 요소가 주어져 S형 혹은 Z형의 지형을 이룰 때에는 曲線的構造로 보았다. 따라서 그 형태성을 토대로 조망요소, 近景대상 주 인자까지 결부 시켜 경관구조를 樓亭별로 구분한 결과, 조망에는 水平的構造가 많은 형태를 보였다. 안계복 (1988)은 정자 전체선호에 조망이라는 요인이 제일 크게 작용하며, 정동오 (1986)는 정자에서 조망의 대상은 입지조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江, 名山, 그리고 들판을 조망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對象樓亭은 近景의 입지는 내나 계류였고, 主 조망인자 또

<表 5> 樓亭別 眺望特性 및 景觀要素.

樓亭名	眺望特性		景觀要素			
	構造類型	形態性	眺望對象	立地近景	主眺望因子	因子變化物
舞雩亭 簾山樓 枕泉亭	수평적구조		강 · 백사장 · 들 · 산 · 청산 내 (川) · 들 · 산 내 (川) · 들 · 판 · 마을 · 청산	강 계류+내 (川) 내 (川)	강 내 (川) 마을	마을 · 식물 마을 · 식물 마을 · 식물
鳳凰亭	측면적구조		내 (川) · 강 · 들 · 판 · 청산	내 (川)	내 (川)+강	마을 · 식물 · 내 (川)
玉流亭	곡선적구조		계류 · 구릉 · 산 · 청산	계류	계류	식물 · 사찰

한 물과 연류된 동적요소가 우세 하였다. 또한 지형축을 고려한 조망공간 범위〔(안계복, 1988:505)의 공간구조 분류방식에 따름〕는 江亭(산-무우정-강-백사장-들(마을)-산-청산), 溪亭(산-옥류정-계류-수림-들-구룡-산), 岩亭(산-암반.봉황정-川-계방-들-청산), 眺望亭(산-침천정-川-계방-들(村 or 도시경관)-산)으로 바위, 산, 하천, 수목 등 다양한 공간형태를 가짐으로써 경관적 질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당시와 현재의 시대적 변화로 인한 인접공간의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을 관련문헌을 참고해 추정해 보니 현재의 변화상대로 마을(有.無)과 식물(수목의 有.無), 하천(축소.확대)이나 사찰(有.無) 등이 경관변화 인자로 보여진다. 또한 경관을 체험하면서 명칭을 부여하는 八景을 두는 대상으로 1.시의주제, 2.주위경관(청산, 고개, 바위, 들판, 백사장, 지형, 강, 하천, 지당, 마을, 사찰)등으로 樓에는 팔경을 두지 않고 있으나 亭子는 八景(안계복, 1988)을 둔다고 했으며, 김자상(1991)은 樓亭을 먼저 세우고 주변의 경물에 이름을 붙이며 詩를 지어 이를 빛내어 전하는 진취적인 면을 보여 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연이나 인위적인 景과 樓亭을 중심으로 계절, 기상 및 경물이 배합되어 아름다운 경치(안휘준, 1988)(강영조, 김영란, 1991에서 재인용)를 나타내듯이, 簾山樓의 『臺谷雜永二十絶』과 舞雩亭이 있는 경천대주변 28景의 경관요소 선정은 관망 대상지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동적.정적인 자연물의 실체를 나타낸 경험적 체험이며, 자연의 경관형태를 인간의 감성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상징적.실체적 공간구성을 통하여 삶의 추구하고 생활의 본질을 추론해 내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속에서 인지될 수 있는 경관요소중 자연의 경관에다 樓亭을 가미한 인공요소는 자연과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어우러지고, 자연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정적공간안에서 심적교류 등, 인간과 자연환경의 동화적인 측면에 뜻을 둔 것으로 보인다.

마. 庭內.外 造景要素

樓亭공간내 조경요소로서 식물, 구조물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수종은 현존 식생 및 고사목도 포함시켰으나, 자료파악이 확실치 않은 고사목은 제외하였으며, 조사 한계점은 건축물에서 5-12m 범위로 하였다.

〈表 6〉와 같이 庭內에 식재된 식물로는 활엽수 7종, 상록수 5종, 유실수 2종, 만경류 1종, 기타 1종과, 庭外에는 활엽수 8종, 상록수 3종, 유실수 2종이 식재 되었다. 담이 없는 樓亭의 식물로는 만경류는 없고 활엽수 3종, 상록수 4종, 유실수 1종이며, 전체적으로 활엽수 16종, 상록수 8종, 유실수 5종, 만경류 1종, 기타 1종으로 총 31종이 식재되어 있다. 이중 庭外 및 담장이 없는 주변공간에 소나무가 80%로 가장 많이 식재되었으며, 아카시아(60%), 무궁화(40%), 참나무(40%) 順으로 나타났고, 庭內에는 배롱나무(40%), 산벚나무(40%), 사철나무(40%), 불두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전라남도 亭子園林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배롱나무이며 그 다음으로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정동오, 1986)고 했다. 따라서 식재면에서 볼때 근래 개인문중의 후손들에 의한 식재가 많음을 볼 수 있어, 비교 고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庭內 배롱나무와 庭外 소나무는 그 당시 선호한 수종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庭內 수종은 인위식재로 볼 수 있으며, 庭外나 담장이 없는 곳은 인위 또는 자연식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庭內의 식재수종은 모두 담벽에 면해 있었다. 그리고 상징성과 실용성을 도모한 인위물로 볼때, 樓亭내 연못을 조성한 곳은 없었고, 단지 鳳凰亭 庭外에 우물이 있었으며, 그 외 鳳凰亭, 舞雩亭의 景外에 비석, 舞雩亭 景外에 들로된 말 먹이통, 簾山樓의 화단과 본체에서 樓로 오르는 전이공간인 자연석계단, 枕泉亭의 경계축대를 두었고, 담장을 설치한 곳은 4개소, 설치하지 않은 곳은 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주지방 조선시대 5개 古주택 庭園(박영달, 신영철, 1992)에 비해 식재비율과, 庭園을 꾸미고 저 하는 조영 의지가 낮았으며 또한 인위물도 庭

<表 6> 庭內·外 造景要素

區分	樹種 및 構造物	對象樓亭					比率(%)	庭內	庭外	담장·無
		A	B	C	D	E				
활엽수	무궁화	+	+				40		A	B
	배롱나무			*+	*+	*+	60	DE		C
	박태기나무				+		20	D		
	능수버들					+	20	E		
	느티나무					*+	20		E	
	산철쭉					+	20	E		
	산벚나무				+	+	40	DE		
	참나무			+		*+	40		CE	
	비즘나무			+			20			C
	불두화	+					20	A		
	자귀나무	+					20		A	
	단풍나무	+					20		A	
	아카시아	+		+	+		60		ACD	
	장미				+	+	20	D		
	싸리나무					+	20		D	
	개암나무					+	20		D	
계(16)		5	1	4	7	6		7	8	3
상록수	은행나무	*+					20		A	
	사철나무			+	+	+	60	DE		C
	소나무		*+	*+	+	*+	80		DE	BC
	측백나무			+		+	40	E		C
	가이즈까향나무					+	20	E		
	옥향	+					20	A		
	향나무	+					20		A	
	대나무			*+	+		40	D		C
계(8)		3	1	4	3	4		5	3	4
유실수	감나무		*+				20			B
	산수유	+				*+	40		AE	
	복숭아나무	+					20	A		
	앵도나무	+					20	A		
	밤나무	*+					20		A	
계(5)		4	1	0	0	1		2	2	1
만경류	담쟁이덩굴					+	20	E		
	계(1)		0	0	0	1		1	0	0
기타	목단	+					20	A		
	계(1)	1	0	0	0	0		1	0	0
합계(31)		13	3	8	10	12		16	13	8
상징물	비석		+		+				BD	
실용물	말뚝이통		+							B
	자연석계단	+				+		A	E	
	축대			+					C	
	우물				+				D	
	화단 담장	+		+	+	+		A	ACDE	B

기호 : A. 臺山樓, B. 舞雩亭, C. 枕泉亭, D. 鳳凰亭, E. 玉流亭 (*+)표시는 교목 및 교사목)

外에서나 몇몇 발견될 뿐 庭內도 계단 등 실용성에 따른것 외에는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굳이 亭子內에서 담장의 높이나 동선체계 등으로 보아 privacy를 강조하지 않은 자연 교감과

조망에 역점을 둔 것으로, 이와 같이 정주환경으로써 주변환경내 좋은 경관을 우선시하는, 수경요소와 경관의 가변인자를 포함하여 자연적인 구성요소에 수용성을 갖은 것으로 보인다.

V. 結論

조선시대 상주지방의 현존 樓亭 중, 樓亭으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5개를 선정하여 조경과 관련된 공간구성을 관계문헌과 현상학적 측면 및 IDRISI(4.1) S/W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에 건립된 樓亭총수(1392-1895년까지 건물, 경물 포함)는 248개로, 이 중 미상을 제외한 樓閣(총 12개 중 현존 5개, 훼손 7개)과 亭子(총 128개 중 현존 46개, 훼손 82개)의 전체 수는 140(현존 51개, 훼손 89개)개로 나타나고 있고, 시대적 樓亭 최성기는 1500-1600년대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 이었다.

2. 樓亭의 행태성은 講學, 藏修, 觀賞(관경), 臥養, 追慕(기념의 목적)형태로 개인과 연관된 정신적 생활 공간과, 상징성은 인문, 자연환경에 연류된 주관적인 묘사를 사용 하고 있다.

3. 건축의 환경에서 1) 건물의 형태특성으로 구조형은 T형(1), □형(1), -형(3)으로, 지붕형태는 합각(1)도 있으나, 대부분 八作형(4)으로, 난간의 有.無는 無(1), 전면 有(1), 有(3) 중에서 -자형, 八作형, 난간(有)가 많았으며, 실의 有.無性도 1(無)개소를 제외한 모두 방을 갖추고 있다. 2) 건축의 조망공간은 공간별 비례를 맞추어 회합공간, 안정감, 경계감, 내적공간감 등으로, 행위성에 편리함을 도모 하였고, 자연교감과借景수법을 이용할 수 있는 조망에 방해되지 않는 쪽으로 구성 되어 있다.

4. 입지 및 경관특성 중 立地點은 산기슭(3)과 강의 절벽(2)이고, IDRISI(4.1)의 분석에서 조망구조는 지형상 3가지 유형분류 중 수평적 형태가 많았다. 그리고 近景의 입지는 내(川)나 계류였으며, 主 조망인자도 물과 연관된 동적 요소가 우세 하였다. 또한 경관 범위는 전체적으로 산, 강, 백사장, 들, 구릉, 계류, 폭포, 수림, 암반, 내(川), 청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적 질이 뛰어난 다양한 조망구성을 이루고 있다.

5. 庭 內.外 조경요소로, 식생은 庭內的 식재 위치는 대부분 담장에 면하여 있으나, 庭外와 담장이 없는 곳은 무분별 식생을 이루고, 식재수종

중 庭內는 배롱나무, 庭外와 담장이 없는 곳은 소나무가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식재비율은 庭內.外 모두 상록수보다 활엽수 비율이 높다. 또한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에 있어서는 상징물과 실용성을 도모한 구조물은 적었고, 담장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아 영역성과 privacy에 관심이 적고, 주변경관과 동화하는 측면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참고문헌

1. 강영조, 김영란(1991), "韓國八景의 形式과 立地特性에 관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9(2):27-35.
2.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829-976.
3. 김기탁, 권태을, 김자상(1991), 「尙州文化研究」, 상주산업대학교:문창사:10-215.
4. 김용수, 이제화(1989), "人工地를 갖춘 竝子에 있어서 眺望角度와 選好要因에 關하여" 「한국조경학회지」, 17(2):1-14.
5. 김자상(1984), 「尙山誌」, 대남인쇄소:68-80.
6. _____역(1986), 「咸昌縣誌」:275-302.
7. 김지민(1993), "朝鮮과 儒敎建築" 「건축역사연구」, 2(4):205.
8. 민경현(1991), 「韓國庭園文化 의장 및 기법론」, 예경산업사:282.
9. _____(1992), "五感을 通해 본 韓國庭苑의 아름다움과 內面世界" 「한국정원학회지」, 10(2):5-10.
10. 박연곤(1990), 「韓國의 亭子」, 대원사:70.
11. 박영달, 신영철(1992), "尙州地方의 古住宅 庭園樣式에 관한 研究" 「한국조경학회지」, 20(2):62-75.
12. 박익수(1990), "韓國 亭子建築의 類型 分類에 關한 研究" 「호남대학 논문집」, (11):575-587.
13. 상주군문화공보실(1985), 「尙州의 열」, 상주군:장왕출판사:362-368.
14. 상주시.군문화공보실(1989), 「尙州誌」, 상주시군:구일출판사:855-882.
15. 안계복(1988), "慶北地方을 中心으로 韓國의 亭樣式形成에 미친 要因分析에 關한 研究" 「호성여자대학교논문」, (36):471-510.
16. _____(1989),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 傳統庭園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64-65.
17. _____(1991), "韓國의 樓亭樣式上 諸特性 및 計劃理論에 關한 研究" 「한국조경학회지」, 19(2):1-11.
18. 이수건(1984), 「民族文化研究 叢書 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8.
19. 이종민(1992), 「湖南歌壇의 樓亭 景觀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105, 147.

20. _____ (1988), "景觀分析 및 評價方法에 관한 研究 現象學的 接近" 「한국조경학회지」, 16(1):43-51.
21. 임승빈 (1991), 「景觀分析論」, 서울대학교 출판부:1-266.
22. _____ (1990), "亭子建築의 實例와 現代的인 應用要素" 「건축사」, 253(5):52-57.
23. 장순용 (1990), "亭子建築의 實例와 現代的인 應用要素" 「건축사」, 257(9):56-61.
24.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69), 「新增東國輿地勝覽」, 고전국역총서:(28):48-76.
25. _____ (1986), "傳統的인 亭子園林의 入地特性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5(1):25.
26. 정동오 (1992), 「東洋造景文化史」, 전남대학교 출판부:1-479.
27. 최은정, 홍광표 (1994), "甫吉島 芙蓉洞 洗然亭庭園의 空間構成 原理에 關한 研究" 「한국조경학회지」, 22(1):147
28. 한국조지위원회편 IFLA (1992), 「한국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144-172.
29. 화북면지편찬위원회 (1991), 「華東勝覽」, 상주군:277-278.